

## 체험담-1955년 10월, 니가타 시의 대형화재

### 개정 인간혁명 제9권 '실증(實證)'

1955년 10월 1일,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전파는 니가타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불길은 계속 번지고, 게다가 태풍 22호의 강풍까지 불어와, 불기운은 약해 질 기미도 없다고 했다.

니가타는 바로 2개월 전인 8월에 도다가 지구총회에 참석하고자 처음으로 간 곳이다. 도다는 니가타의 회원 세대 수를 조사하게 했다. 니가타현은 약 2000세대, 그 가운데 약 1000세대가 시내에 거주하는 회원임이 판명되었다.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0세대가 대형화재에 노출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재민도 상당수에 달하리라 생각되었다.

전화두절로 통화가 되지 않아,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두달 전에 처음으로 만난 니가타 학회원들의 순박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니가타지구는 무코지마지부 소속이다. 지부 간부 몇 명이 본부와 연락한 뒤, 서둘러 니가타에 갔다. 한편 정오 무렵에야 니가타지구에서 첫 보고가 본부에 들어왔다.

‘화재를 진화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민 중에 학회원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니가타 경찰본부의 발표로는 화재로 소실된 가옥이 1000가구가 넘는다고 했다.

저녁이 지부 간부도 현지에 도착해, 상세한 보고가 본부에 계속 들어왔다.

이 대형화재로 소실된 가구 수는 972가구, 이재민은 5901명에 달했다. 당시 니가타시의 총 세대 수는 5만 5502세대, 인구는 26만 5719명이었다. 약 2퍼센트의 피해이지만, 불에 탄 구역이 시의 중심부 변화가인 7만 8000평이었다.

시민들에게는 일대 사건으로, 충격이었다.

하룻밤동안 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후루마치거리 9번가에 있는 오사베 지구부장의 집에, 지구의 회원이 탄내가 가득한 어두운 밤거리를 살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다. 이윽고 지구부장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구부장은 이날 총본산에 등산하여 집에 없었는데, 각 방면에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촛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순간에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숨을 죽였다. 각 반에서 들어 온 보고를 종합해보면, 시의 변화가는 전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회원들의 밀집지대는 화재를 완전히 모면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

다.

순수한 신심을 관철하고 투쟁한 지구의 회원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지구강의에서 배운 범화경의 한 구절을 상기했다.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떠들게 할 수 없느니라.”(어서 1338쪽)

새삼스레 이 경문을 절실히 음미했다.

지구의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하는 끝없는 이야기에서 판명된 사실은, 학회원의 집 대다수는 불이 난 지역의 바깥쪽에 있었다. 그들은 방화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불길이 옮겨 붙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풍향이 바뀌고, 불길이 그들의 집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불길은 마사야골목에서 가미오카와마에거리를 맹렬한 기세로 불태웠다. 그 바깥 쪽에는 학회원의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불길은 당연히 인접해 있는 이들의 집을 집어삼킬 듯이 보였다.

그런데 불은 여기서 멈추었다. 그리고 이시즈에초거리의 건물로 번진 불길은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 옮겨 붙어 다시 불타오르다가 강폭이 넓은 시나노강 강가에서 겨우 끝났다. 여덟시간에 걸친 대형화재였다.

평균 풍속(초속) 22미터, 순간 풍속 33미터의 강풍 속에서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는데, 참으로 절묘하게 학회원들의 집을 피해 지나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구의 회원들은 무사하다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이 현상에 서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날 하루, 새벽부터 불안과 공포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악몽에서 깨어나,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흥분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마구 솟아오르는 어본존에 대한 한없는 감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민들이 새벽에 사이렌소리를 들었을 때, 태풍 22호의 중심은 일본 서해안을 종단해 사도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었다. 바람은 강했지만 강수량이 적어, 니가타 시에도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전날 3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화재경보가 이미 발령되었다. 화재발생 시간은 1일 오전 3시, 기상상황은 풍속 20.2미터, 기온 24.8도, 풍향 서남서, 흐린 하늘에 니가타지방은 이상 건조를 동반한 뽀현상을 보였다. 최악의 기상상황이었다.

습한 공기가 산악에 격하게 휘몰아치면, 공기(바람)는 상승하면서 차가워지고, 습기는 응집해 얼음이나 물방울이 된다. 그리고 수분을 잃은 공기가 산악의 능선을 넘어 평야로 내려오면서 불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것을 뽀현상이라고 한다.

태풍이 일본 서해안을 지날 때,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중부산악지대를 넘으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태평양 쪽보다도 일본 서해안 쪽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10도 가까이 높아진다.

니가타에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때마침 순간 풍속이 33미터의 폭풍 외에도 건조한 고온바람이 불어닥쳤다. 화재에 관해서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니가타시는 이 원현상 때문에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옛 기록을 보면, 1908년 3월 8일에는 후루마치거리 8번가에서 불이 나, 1200가구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해 9월 4일에는 후루마치거리 4번가에서 불이 나, 2100여가구가 소실되었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1880년 8월 7일, 가미오카와마에거리 6번가에서 난 불은 현청(縣廳)과 경찰서를 비롯해 6100여 가구를 불태웠다.

이밖에도 대형화재가 몇 번 있었지만, 1923년 4월 12일에 490가구가 소실된 이래 이 정도의 대형화재는 없었다. 전쟁피해도 다행히 모면했지만, 33년 만에 이런 대형화재라는 재앙을 만난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은 화재를 매우 조심했다. 잠도 못 이룬 채, 덧문을 격렬히 두들기는 바람소리를 두려워하면서 집 안의 불씨를 점검하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음에 틀림없다.

그때 기분 나쁜 사이렌소리가 울린다. 시민들 대부분은 일어나 몸차림을 갖추고, 어디서 불이 났는가 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바람은 강했다. 캄캄한 하늘에 솟아오른 불길을 보고, 이야기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가쿠초거리 1번가의 교육현청이 발화점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새벽 세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밤하늘은 순식간에 빨갭게 물들더니 밝아졌다. 인접한 니가타 주재 미국문화원에 옮겨붙은 불길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소방대원이 어느 지역에서 있는 힘을 다해 불을 끄고 있으면, 강풍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불뚝이 점점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떨어져서 불씨를 만들고 띄엄띄엄 화재를 발생시켰다. 화재진압은 불길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나중에 조사로 판명된 바에 따르면, 이날 밤 불뚝이 날아가 2차화재를 일으킨 곳이 무려 마흔여덟곳을 헤아렸다.

서남서에서 몰아친 강풍이 순간적으로 불뚝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30~40분 뒤에는 화재가 난 곳에서 600미터 정도 떨어진 백화점, 시청, 우체국 등이 늘어

선 변화가에서 맹렬한 불길의 피어올랐다.

소방대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불길을 쫓았다.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불을 끄고, 물통 릴레이로 불길을 막기도 하여 공터에서 겨우 화재가 사그라들기도 했다. 하지만 불길은 북동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번져 나갔다.

지구의 회원 중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불길의 추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라디오니가타(RNK)는 화재정보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날 밤, 라디오니가타는 서해안을 통과하는 태풍정보를 전하기 위해 방송시간을 연장했는데, 시간조정 때문에 음악을 내보내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이 음악이 갑자기 중단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라디오니가타는 이렇게 첫 보도를 한 뒤, 새벽 네 시가 지나자 화재의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화재상황을 시민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렸다.

라디오니가타의 본사 스튜디오는 다이와백화점 7층에 있었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옥상에 마이크를 특별설치하고, 실황방송을 담당하는 아나운서는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줄로 몸을 철책에 묶었다. 순간 풍속은 33미터였다.

“바람이 더욱 강해져서 마이크가 직접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조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실황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불길은 지금 가지골목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지골목에서 고바야시백화점을 향해, 불길은 더욱 그 마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니가타일보사 신관에는 인쇄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기름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름통에서 불이 난 듯합니다. 특유의 색을 띠고 있고, 연기가 굉장합니다. 바람이 강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 코, 입으로 연기와 불똥이 날아들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이 실황도 알아듣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잠시 끊겼다.

“불똥이 지금 계속해서 니시보리와 후루마치 쪽에서 날아와서, 이곳 다이와백화점 옥상을 넘어 더욱 맞은편으로 계속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달은 모습을 감추었지만, 화재현장의 밝은 불길, 마의 불길 때문에 이곳 일대는 대낮처럼 밝습니다. 마치 조명탄을 쏘아올린 듯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십자사와 니가타대학교 교육학부 그리고 에이쇼거리 일대의 지붕들이 환하게 빛나며 그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쌩쌩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소방차 사이렌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아나운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연락에 따르면, 화재현장 부근은 소화전이 부족해서 화재진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화재현장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안의 화재에도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어쨌든, 불길이 두곳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소방단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불뚱이 날아들어 새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앗, 그리고 이번에는 ... 사거리,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거리에 있는 다이와백화점 바로 맞은편의 핫코서점에서 지금 막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같습니다.

현청 쪽에서 다이와백화점 방면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에 따라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뚱이 날아들었을까요! 이곳은 핫코서점! 핫코서점에서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소리가 숨가쁘게 울린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현청 앞에 있는 교육청에서 일어난 불. 그리고 방금 핫코서점의 화재 등, 현장이 세곳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불은 강풍으로 니가타시 중심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불길이 대단합니다. 불길이 대단합니다!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핫코서점 쪽 불길이 다시 왼쪽으로 옮겨붙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불길을 똑바로 보면 거기서 불어오는 불뚱과 연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저희는 마치 한여름 같은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은 아나운서가 있는 다이와백화점의 교차로를 끼고 맞은편에 비스듬히 있는 고바야시백화점으로 다가갔다.

“핫코서점뿐이 아닙니다, ... 이번에는 ... 고바야시백화점 근처에서도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앗! 고바야시백화점에서 불길이? 고바야시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곳까지 불길이 치솟자, 깜짝 놀란 아나운서는 실황방송을 중지한다고 급히 알렸다.

“그러면, 실황방송을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위험하므로 이쯤에서 실황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침착한 실황방송이 끝나고 잠시 뒤, 다이와백화점에도 불길이 옮겨붙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라디오니가타의 본사 스튜디오도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대형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하나의 작은 불길에 지나지 않았다.

누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지만, 다시 규명해보니 현교육청 건물의 2층 서쪽 외벽에 붙어 있는 외등에서 불이 난 모양이다. 이 외등의 절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사못에서 벽 밑부분의 철망모르타르에 전류가 흘러, 그 밑에 있는 펠트지에 불이 붙어 지붕 밑으로 번진 것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이 외등은 이해 1월 중순경에 설치한 것으로, 그 무렵 시내 관공서에 도둑이 자주 출몰하자, 그 방법대책으로 설치한 외등임이 밝혀졌다.

누전으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나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1200세대가 재해를 입는 참사였다

태풍은 일본 서해안에서 오토츠크해로 빠져나가자, 오전 7시경에는 바람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불길은 여세를 몰아 계속 타올랐는데, 오전 10시 50분에 진화될 때까지 거리는 계속 불타고 있었다.

니가타 시내에는 약 1000세대의 학회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시가지 일대에도 학회원이 많이 살았다.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이재민 1200세대 가운데 학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불길은 학회원이 사는 지역을 마치 피하기라도 하듯이 하면서 번져 나갔다.

지금까지 화재피해를 모면했다는 신앙체험담을 각지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대형화재의 사례는 처음이었다.

니가타지구의 회원 일동은 이러한 모습이 묘법을 수지한 현증(現證)임을 알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포로 가득한 고난의 하룻밤이었다. 그렇지만 타다 남은 불기운 속에서 니가타 지구 회원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실증을 통해, 어본존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확신에 불타올랐다.

2일 아침, 오사베 지구부장은 등산회에서 급히 니가타로 돌아왔다. 오사베는 불에 탄 잔해로 바뀐 드넓은 소실구역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수많은 회원이 화재를 모면했다는 사실에 더욱 크게 놀랐다. 불단 앞에 단좌한 오사베는 근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니가타로 이사온 오사베가 니가타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 동안 혼신

의 힘을 다해 활동한 결과가 이런 실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어본존을 향해 넘쳐흐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몸이 떨리는 심정이었다.

오사베가 도쿄의 집을 처분하고 니가타시로 이사한 때는 이해 5월 말이었다. 도쿄에서 자란 그가 한 공장주로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니가타로 이사를 결행하게 된 이유는,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집안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사베는 도쿄에서 학회활동을 하는 동안, 니가타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광선유포를 향한 열의가 그들 부부에게 니가타로 이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해도 좋다. 절복의 즐거움은 신천지 니가타를 개척하겠다는 꿈이 되어, 이사를 결의하게 되었다.

오사베 일가(一家)는 1950년 말에 입회했다. 작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창가학회 초창기의 격심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1952년 무렵, 니가타 출신의 어느 청년이 오사베의 공장에 일하러 왔다. 오사베의 인품을 접한 그 청년은 얼마 뒤에 입회했다.

이윽고 청년은 고향인 니가타로 돌아가게 되었다. 잠시 연락이 끊겼지만, 그 청년은 니가타에서 홀로 절복활동을 시작했다. 경험이 적은 청년에게 절복이라는 난사가 간단히 될 리도 없었지만, 청년은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청년이 마음에 걸린 오사베는 지도도 할 겸해서 니가타에 갔다.

이 무렵 창가학회는 지방에 진출하려는 기운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오사베도 지구부장으로서, 지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방거점을 설치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니가타방문은 뜻밖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 청년의 착실한 하종활동이 오사베의 응원으로 잇달아 열매를 맺었다.

니가타에 가면 새로운 회원을 지도하고 절복하느라 쉴 틈도 없이 활동해야 했다. 오사베는 지구담당원인 아내와 교대로 니가타에 다녔다. 그 빈도는 한달에 몇 번밖에 안 되었지만, 갈 때마다 오르는 성과가 피로를 잊게 했다.

그 때문에 오사베가 담당하는 도쿄의 지구는 이 무렵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의 지구 중에 손꼽히는 우수지구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먹을거리가 아직 부족한 시절이라서, 쌀의 산지인 니가타의 질 좋은 쌀은 무척 매력이 있었다. 아이들이나 친척들의 영양보급을 위해, 돌아오는 길에 식량을 사 오기도 했다.

오사베의 공장경영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담당하는 지구의 융성과 니가타방면의 활발한 홍교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성적은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일반적인 불황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당시 일본의 경제계는 세계시장의 경쟁에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생산성 향상운동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지만, 대기업의 합리화 계획이 진척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압박을 받아 희생을 강요당했다.

오사베의 공장도 그 와중에 빠져 있었다. 거기에 또 1955년 연초 무렵에는 유일하게 의지해 온 지주회사가 화재로 도산하고 말았다. 오사베는 동분서주 했지만, 활로가 좁처럼 열리지 않았다. 고투와 고심 끝에 오사베는 전업을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오사베는 공장을 경영하기 전에 조리사 자격증을 따, 형과 함께 식당을 경영한 경험이 있었다. 오사베는 조리사로서 일어서겠다는 결의에 불탔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 생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니가타에 오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직접 돌보며 육성한 니가타 동지를 향한 애착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끊기 어려울 만큼 자라 있었다. 아내 또한 니가타 사람들에게 똑같은 애정을 품었다. 부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니가타에 먼저 작은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다. 광선유포가 발전하기 시작한 니가타에서 자신의 사명에 살아가자고 결의한 것이다. 니가타라면 신심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도쿄에서는 할 수 없다고까지 깊이 생각했다.

도쿄의 지구부장, 지구담당원을 사임하고, 신천지 니가타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부부의 결단은 학회의 미래와도 관계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결론은, 도다 조세이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오사베는 도다에게 지도를 받자고 생각했다.

그때는 학회가 통일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던 4월이었기에, 도다는 매우 바쁜 나날이었다.

“선생님, 사실은 니가타에 가고 싶습니다만 ....”

도다는 오사베가 자주 니가타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선거가 한창이었다.

“니가타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만, 니가타에서 자리잡고 마음껏 활동하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갑작스레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였다. 도다는 오사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공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사베는 공장이 지금 처한 실태를 남김없이 보고했다.



이미 폐쇄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다는 순간, 슬픈 얼굴을 했다.

“그런가, 전업이구먼. ...그래서 니가타에 가서 할 생각인가. 생활이 될 만한 일이라도 있는가?”

신뢰하는 한 지구부장의 어려움은, 도다에게도 심금을 울리는 괴로운 문제였다. 오사베는 지금 도다를 슬프게 하고 있음을 알고는 몸이 움츠러드는 심정으로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고무하듯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여 니가타에서 신심과 생활을 새로이 일으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리사 경험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제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사베는 설명했다. ‘작은 식당이라도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학회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학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도다는 궁지에 몰린 오사베의 형편을 잘 이해했지만, 지금의 방침이 단순한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끼면서 말했다.

“부인은 뭐라고 하는가?”

“찬성했습니다.”

“아이는 몇인가?”

“둘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야 하는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 니가타에서 쪽 살 작정인가, 아니면 가서 잠시 상황을 보려는 건가?”

“가서 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

말끝을 흐리는 오사베를 보고 도다는 걱정되었다.

‘니가타에서 생활이 안 되면 또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돌려고 하는가 니가타에서 신심활동을 계속하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신심의 표류자가 되면 안 된다.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

도다는 사업에서 패배한 오사베의 현재를 걱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도다는 갑자기 엄한 표정으로 오사베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게으름을 깨는 듯한 예리한 어조였다.

“자네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든, 그것은 자네의 자유이다. 하

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자니, 일단 결의는 훌륭하게 보이지만 마음 밑바닥에서는 어본존에게 기대고 있지 않은가.

‘니가타에서 앞으로도 광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므로, 어본존님은 내 생활을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는 듯한 염치없고 안일한 생각이, 자네의 결의를 마치 응석처럼 느끼게 한다. 그런 자세라면, 니가타에 가서 잘 안 되면 비명을 지르고 다시 도쿄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네는 지금 잘 모르고 있겠지만, 자네는 어려움과 결연히 맞서겠다는 용기보다도 어본존님의 가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 패기 없는 자를 키운 기억이 없네!“

오사베는 도다의 질책이 뜻밖이었다. 그는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을 온몸으로 맞는 듯한 느낌으로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도다는 어조를 바꾸어, 타이르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아직 모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자네가 신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처자와 함께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떠한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부양하자고 일어서겠는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가족과 함께 자살하겠는가.

어느 쪽인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을 부양하겠습니다.”

오사베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눈을 계속 껌벅였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넘칠 듯했지만, 꺾 참았다.

“그렇지, 그래야만 도다의 제자이다. 절체절명의 때에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숙명과 맞서 싸우는 투쟁도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생활이나 신심도 마찬가지다. ‘신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세는 신심이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없는 지혜를 짜내고 땀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하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 이때 어본존의 가호가 엄연히 나타난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니가타에 가는 것이라면 그만두게. 간다면 뼈를 묻겠다는 가가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각오도 없이 가서, 도대체 사나이 대장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엄한 질타에 오사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서 도다를 바라보았다.

도다의 눈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도다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얻은 체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오사베에게 위로하듯이 이야기했다.

“생활력을 잃은 남자만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는 없다. 나도 그런 위기에 몇

번이고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섰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네. 어떻게든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에서 니가타로 옮긴다고 해도, 자네의 숙명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장소가 바뀌어 숙명도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달콤한 이야기도 없다. 숙명은 어디까지라도 자네를 따라다니는 법이다. 자네는 지금 난을 만났다. 그리고 생활에는 패했지만, 다행히 자네는 아직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자네는 아는가. 마음에 쌓아둔 굉장한 재산이다.“

오사베는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는 도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을 터이다.’

좋다, 니가타에 뼈를 묻자.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인생을 걸고 해보자.

있는 힘을 다했는데도 만약 굶어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죄장소멸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 심정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적어도 어본존님은 조람(照覽)하고 계시 터이고, 도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리라. 이제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 — 초라해진 오사베를 이 말만큼 소생시킨 말은 없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환희했다. 순식간에 고양된 오사베의 얼굴을 보고, 도다는 그의 결의가 거짓이 아님을 간파했다.

“결심이 섰는가. 초조해하면 안 된다. 먼저 침착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내게로 오게. 자네의 뼈를 내가 거둬들이겠네. 나는 자네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오사베는 그저 기뻐다. 그는 마침내 흐느껴 울었다. 기개 없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스승이 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감동한 것이다.

지도는 끝났다. 긴 대면이었다. 도다는 귀중한 시간을 오사베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도다는 그대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다음 장소로 갈 시간이 이미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사베 부부가 도쿄의 집을 정리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니가타로 이사한 때는 5월 26일이었다. 후루마치거리 9번가에 거처를 마련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큰길가의 집이지만, 식당을 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동시에 이달 5월에는 수백 세대를 바탕으로 한 무코지마지부 니가타지구가 결성되었는데, 오사베 부부도 역시 지구부장, 지구담당원으로서 출발했다.

조리대에 선 오사베 부부는 잇달아 찾아오는 지구의 회원들을, 손님이 있으면 때로는 기다리게 해놓고, 열심히 일했다.

일을 일단락지으면 지구의 회원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끝나면 조리대로 돌아왔다. 시간적으로 일과 신심을 매우 합리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다. 바쁜 저녁시간이 지나면, 교대로 부부는 저녁 회합에 뛰어다녔다.

고투라고 하면 고투의 나날이었지만, 부부는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오사베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 틈도 없을 만큼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어려움이 겹쳐,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면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신심에서 패하면 되겠는가.’ 라는 필사적인 분발이 일가를 지탱하고, 고투를 이겨내게 했다.

오사베는 도쿄를 떠날 때 도다에게서 하나의 목표를 받았다. 그것은 니가타지구가 800세대가 되면 니가타에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격려의 약속이었다.

도쿄에서 지구부장을 오래 한 경험은, 신천지 니가타를 개척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해도 좋다. 목표와 힘이 하나가 된 새로운 지구 니가타는 발족한 달부터 순식간에 급성장을 거듭하고, 8월에는 지역에서만 본존유포 200세대를 감행하여 전국에서 지구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그 결과, 발족하고 얼마 뒤에는, 도다와 약속한 800세대를 달성했다.

소생한 오사베와 니가타지구의 생기발랄한 기운은, 10월 1일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불길을 뛰어 넘어 신생(新生)의 전진을 개시했다.

이 대형화재가 일어난 무렵, 니가타에 사찰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니가타시의 해안가에서 가까운 소나무 숲에 있는 집을 구입해, 사찰로 개축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입불식이 거행되었다.

니가타역으로 도다를 마중 나온 오사베 지구부장의 얼굴에는, 고뇌로 가득하던 4월 무렵의 표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8월 지구총회 무렵에 전개한 고투의 피로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상쾌한 미소로 도다를 맞이했다.

“이야”

도다는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며 오사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사는 잘되는가?”

“예, 순조롭습니다.”

“정말인가. 돈을 벌어야 하네. 자네는 장사가 서투르니, 이번에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도다는 웃으면서 오사베와 함께 매우 기분 좋게 차에 탔다.

니가타지구는 단기간에 광선유포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들은 싱싱하고 소박한 초심(初心)의 신심을 그대로 지속하고, 더불어 대형화재의 시련에 따른 체험에서 얻은 확신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로운 개척에 도전했다.

대형화재 때,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증도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회원들은 입회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구 내에는 청정한 신심이 맥동했다. 회원들 모두 구도심이 넘치고, \*이체동심(異體同心)의 강한 단결이라는 유대가 있었다. 극히 이상적인 신심상태라고 해도 좋다.

대형화재가 일어난 날, 폭풍 속에 울린 사이렌소리에 먼저 어본존을 향해 창제하고, 집과 동네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피난준비를 하고, 동시에 화재진압에 과감히 힘썼다. 이 모습에 모든 지혜의 발동이 있고, 모든 행동의 적확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저 막연히 제천의 가호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니가타로 이사한 오사베 지구부장이 도쿄를 떠나기까지는 커다란 결의가 필요했다. 동시에 그 결의는, 입회 당시의 ‘이 신심으로 반드시 인생을 열고야 말겠다.’는 초심을 자기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했다. 모든 과거를 버린 오사베는, 니가타에서 소생하기를 염원하면서 활동했다. 도다의 오랜 훈도는 멀리 떨어진 니가타의 땅에서 훌륭하게 꽃을 피웠다.

니가타지구는 생기 넘치게 급속한 성장을 지속했다. 그리고 니가타지구는 이듬해 1956년 8월에 수많은 지방지구 중에서 선구를 달리는 지구가 되어 니가타지부가 되고, 아키타지부와 함께 처음으로 일본 서해안 쪽에 지부기를 휘날리게 되었다. 지부기를 굳게 움켜쥔 사람은 오사베 지구부장이다. 그는 니가타지부장이 되고, 아내는 지부부인부장이 되었다. 1년 3개월 전의 부부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때 전국에서 16개 지부가 한꺼번에 탄생해, 창가학회는 32개 지부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 인간혁명 제9권 ‘실증’